

경험학습 기반 색채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분석

대학생의 표현성·단순성·자율성 향상을 중심으로

Development and Effectiveness Analysis of an Experiential Learning-Based Color Education Program

Focusing on the Enhancement of Expressiveness, Simplicity, and Autonomy in University Students

주 저 자 : 김예원 (Kim, Yeawon)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디자인공예학과 색채전공 박사
yw2479@hanmail.net

<https://doi.org/10.46248/kids.2026.2.210>

접수일 2026. 05. 20. / 심사완료일 2026. 06. 01. / 게재확정일 2026. 06. 08. / 게재일 2026. 06. 30.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develop an experiential color education program based on Kolb's experiential learning theory and analyze its effects on college students' color expressiveness, simplicity, and autonomy. A total of 32 students majoring in art and design at a university in the metropolitan area participated in a 15-week program. The research results were derived through pre- and post-surveys, performance evaluation rubrics, and reflective report analyses. The findings revealed that the experiential color education program significantly improved all areas of expressiveness, simplicity, and autonomy. Learners recognized color as an emotional expression medium through emotion-based color activities and reflection processes, which enhanced their emotional recognition and self-expression abilities. Moreover, activities using limited colors improved visual clarity and communication efficiency. Autonomy showed the largest improvement, attributed to the program's design that respected learners' subjective experiences and interpretations. Correlation analysis indicated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s among expressiveness, simplicity, and autonomy. This study confirms that experiential color education is an effective educational method that integratively enhances learners' emotional expression, visual structuring abilities, and self-directed expression skills.

Keyword

experiential learning theory(경험중심이론), expressiveness(표현성), simplicity(단순성), autonomy(자율성)

요약

본 연구는 콥의 경험학습 이론을 기반으로 한 경험중심 색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해당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색채 표현성, 단순성, 자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수도권 소재 대학의 미술 및 디자인 관련 전공 학생 32명을 대상으로 15주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사전·사후 설문조사, 수행평가 루브릭, 성찰 보고서 분석을 통해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경험중심 색채교육 프로그램은 표현성, 단순성, 자율성의 모든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다. 학습자들은 감정 기반 색채 활동과 성찰 과정을 통해 색채를 정서적 표현 매체로 인식하게 되었으며, 이는 감정 인식과 자기표현 능력의 향상으로 이어졌다. 또한, 제한된 색채를 활용한 활동은 시각적 명료성과 전달 효율성을 높였다. 자율성은 가장 큰 향상 폭을 보였으며, 이는 프로그램이 학습자의 주관적 경험과 해석을 존중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상관분석 결과, 표현성, 단순성, 자율성은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본 연구는 경험중심 색채교육이 학습자의 감정 표현 능력, 시각적 구조화 능력, 자기주도적 표현 능력을 통합적으로 향상시키는 효과적인 교육 방법임을 확인하였다.

목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2-1. 색채의 이론적 특성

2-2. 색채의 조형적 특성

2-2-1. 표현성

2-2-2. 단순성

2-2-3. 자율성

2-3. 콥(Kolb)의 경험학습이론

3. 연구 방법

3-1. 연구 설계

3-2. 연구 대상 및 수집 기간

4. 결론 및 제언

1. 서론

현대 사회는 시각 정보의 과잉 속에서 효율적인 정보 전달과 감정적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조형의 기본 요소인 색채는 인간의 지각과 정서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시각 요소로 장식적인 기능을 넘어 의미 전달과 감정 표현의 핵심 매개로 인식된다. 색채 심리학에 따르면 색채는 언어보다 먼저 감정 반응을 유발하며, 인지적 판단과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색채교육은 단순한 이론 학습을 넘어 학습자의 감각적 경험과 정서적 반응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교육으로 확장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색채교육은 색의 3속성, 배색 기법, 색채 대비 등과 같은 이론 중심의 지식 전달에 치중하는 경향이 짙으며, 학습자의 주체적 경험과 의미 구성 과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는 초등학교는 물론 대학에서까지 이어지며 활동 프로그램의 부족으로 타 학문 간의 유기적인 교류와 색채의 활용 기초 능력을 키우는 체계성이 부족하고, 획일적인 교육 패턴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실제 시각 커뮤니케이션에서 중요한 역량으로 거론되는 색채를 통한 감정 표현 능력(표현성), 시각적 요소를 구조화하는 능력(단순성), 그리고 색의 의미를 스스로 해석하고 선택하는 능력(자율성)을 체계적으로 통합하여 다루는 교육적 접근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경험중심 교육이 주목받고 있다. 존 듀이(John Dewey)는 교육을 경험의 재구성 과정으로 보며, 학습자가 만들기, 토론하기, 실험하기, 역할놀이, 협동 프로젝트 등과 같은 실제 경험과 밀접한 활동에 노출될 때 진정한 학습의 의미를 체득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이후 데이비드 콥(David A. Kolb)의 경험학습 이론으로 구체화되었는데, 그는 ‘학습은 경험을 성찰하고 개념화하여 다시 적용하는 순환과정’이라며 ‘구체적 경험-성찰적 관찰-추상적 개념화-능동적 실험’의 4단계로 이를 설명하였다. 경험학습 구조는 학습자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고, 지식의 내면화와 실제 적용 능력을 향상시켜 창의력 및 문제해결력, 협업 능력 등을 높이는 데에 효과적이다.

참고문헌

이로 인해 색채교육 분야에서도 경험학습 기반 접근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색채는 지각적·정서적 경험을 통해 이해될 때 학습 효과가 증대되며, 특히 감정 기반의 색채 활동과 성찰 과정이 결합될 경우 표현 능력과 창의성이 향상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게슈탈트 심리학의 관점에서는 시각 정보의 단순화가 인지 효율을 높이고 의미 전달을 명확하게 한다고 설명하며, 이는 색채 단순성 교육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더 나아가 현대 미술과 디자인 이론에서는 색채가 대상 재현을 넘어 독립적인 의미를 생성하는 자율적 요소로 기능함을 강조하며, 색채 자율성의 교육적 중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데이비드 콥의 경험학습 이론을 기반으로 표현성·단순성·자율성을 통합적으로 향상시키는 경험중심 색채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그 교육적 효과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색채교육이 지식 전달 중심에서 벗어나, 학습자의 감각적 경험과 주체적 의미 구성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으로 확장될 수 있는 이론적·실천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색채의 이론적 특성

빛이 존재하는 이상 모든 대상은 시각적으로 색을 드러내며, 인간은 시각 경험을 통해 색을 인지하고 감각한다. 이러한 과정은 색채가 단순한 물리적 현상을 넘어 정서적 의미로 해석되어 인간의 감정을 자극하는 표현적 특성임을 방증한다.

게슈탈트 심리학자인 루돌프 아르하임(Rudolf Arnheim)은 형태와 색채는 서로 독립적인 시각 요소로 형태는 상대적으로 논리적이고 전달 기능이 높은 반면, 색채는 감성적이고 정서적 경험을 이끌어내는 데에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고펜브리치(E.H.Gombrich) 또한 색에 대한 경험은 인간의 정신세계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 일상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색은 단순한 시각 정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특성 대상이나 다양

한 상황이 결합되어 심리적 이미지, 연상, 감정적 판단을 동반한다고 하였다. 괴테(Johann Wolfgang von Goethe)는 저서 『색채론』에서 색마다 고유한 정서적 성격이 존재한다고 보았고, 막스 루셔(Max Lüscher)는 색채 선호는 인간의 심리 상태는 물론 그들의 성격을 대변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는 정서 상태와 스트레스 수준에 대한 분석까지도 파악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많은 학자가 색채를 단순한 물리적 자극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과 정신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표현적 요소로 이해한 관점은 색채가 인간의 정서와 경험, 자기표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며, 경험중심 색채교육의 이론적 기반이 된다.

2-2. 색채의 조형적 특성

홍영이(2021)의 연구에 의하면, 색채는 르네상스 이후 더 사실적이고 섬세한 묘사가 가능해지며 예술표현의 중요한 요소로 발전하였으며, 고전주의, 인상주의, 야수주의를 거쳐 예술 세계를 풍부하게 하는 핵심 요소로 여겨졌다.¹⁾ 특히 색채는 단순히 대상의 외형을 재현하는 수단을 넘어 작가의 감정을 전달하고 작품의 의미를 형성하며 시각적 질서를 구성하는 역할을 수행해 온 것이다. 이처럼 현대 예술과 디자인에서의 색채는 시각적 장식 요소를 넘어 감정 전달, 정보 조직, 의미 생성이라는 독립적인 조형 언어로서 그 가치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색채의 조형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색채가 지닌 정서적 기능, 인지적 기능, 그리고 창의적·주체적 기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표현성, 단순성, 자율성을 중심으로 색채의 조형적 특성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2-2-1. 표현성

색채는 인간이 외부 세계를 인지하는 데에 있어 아주 중요한 감각적 요소로 대상의 온도감, 질감, 거리감, 시간감 등과 같은 시각적 정보는 물론 특정한 감정과 분위기를 바탕으로 상징적 의미를 경험하게 한다.

일반적으로 파란색은 시원함, 안정감, 우울함, 붉은 색은 열정, 긴장감, 열정 등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현대의 색채심리학에서는 이러한 해석이 지극히 절대적이지는 않다. 색의 의미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개인의 경험과 문화적 환경, 상황적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인간의 심리와 환경 속에서 유동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야수주의의 대표 화가 마티스는 강렬한 원색이 대비되고 생동감이 극대화되는 색채를 표현적이고 구조적인 배열을 위한 하나의 실험이었다고 언급하였다. 추상표현주의에서는 색채는 영혼의 깊은 곳에서 불러일으켜지는 울림²⁾으로 모든 형태를 상징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직접적 수단³⁾이라 표현했다. 이는 색채가 인간의 감정표현의 주체로 기능하는 요소이자 단독으로 존재할 때보다 다른 색들과의 관계 속에서 조화를 이룰 때 더욱 풍부한 표현력을 갖게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색채의 표현성은 색의 지속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생명력과 이에 응당한 심리적 작용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또한 언어의 도움 없이도 인간의 기쁨, 슬픔, 긴장, 안정 등과 같은 감정을 시각적으로 드러내어 예술과 디자인, 심리치료 분야에서는 색채의 이러한 특성을 폭넓게 활용하고 있다. 이는 색채를 활용한 표현 과정이 단순한 미적 활동을 넘어 개인의 감정 인식과 정서적 소통 능력을 확장시키는 경험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2-2-2. 단순성

색채의 단순성은 제한된 색채로 시각적 명료성과 전달의 효율성을 높이는 특성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색의 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시각 요소를 제거하고 핵심적인 정보와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시각적 구조화 과정으로 이해된다. 현대 시각디자인과 미술에서는 복잡한 시각 정보의 범람으로 명확한 인지와 빠른 정보 전달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색채의 단순성이 중요한 조형 원리로 주목받고 있다.

존 스웰러(John Sweller)의 인지부하 이론에 따르면, 시각적 요소가 지나치게 많을 경우, 작업 기억에 부담이 증가하고, 불필요하게 다양한 색채의 사용은 외재적 인지 부하를 유발하여 정보 이해를 방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대로 단순한 색 구성은 학습자의 주의를 핵심 정보에 집중시키고 정보 처리 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 따라서 복잡한 색 배열은 주의 분산이나 피로감을 초래할 수 있지만, 제한된 색 사용은 명확성과 집중도를 강화하는 효과를 가진다.

색채의 단순성은 정서적 반응과도 밀접하게 연결된다. 비교적 절제된 색채 조합은 안정감과 신뢰감, 그리

1) 홍영이, 2021, 양리 마티스의 색채와 조형성 연구, 수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36

2) 루돌프 아론하임, 김재은 역(1984). 예술 심리학, 이화문고, p.254.

3) 김창희, 2021. 무의식적 반복에 드러나는 색채의 조형성 연구: 연구자의 작품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16.

고 시각적 편안함을 제공하는 경향이 있으며, 감정 해석의 일관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 반면 지나치게 많은 색이 혼합된 구성은 사람마다 다른 감정적 반응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고, 경우에 따라 불안감이나 시각적 피로를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색채의 단순성은 효과적인 시각 커뮤니케이션 전략으로 시선의 흐름과 위계의 조직화, 핵심 메시지 강조, 직접적인 의미 전달을 위해 활용된다. 결국 색채의 단순성은 색채 요소를 통해 시각적 명료성과 구조적 질서를 형성하고, 핵심 정보와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특성을 의미한다. 이는 인간의 지각 원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감정 표현과 시각적 전달 효율성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중요한 조형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2-2-3. 자율성

색채의 자율성이란 색이 특정 사물이나 형상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의미와 감정을 전달하는 그 자체로 작용하는 특성을 의미한다. 전통적으로 색채는 사물의 고유한 색을 재현하거나 형태를 보조하는 요소로 이해됐으나, 현대에 들어와서는 색채가 형태와 분리되어 독자적인 표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관점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자율성은 색채가 단순한 시각적 장식 요소를 넘어 인간의 감정과 경험, 상징적 의미를 독립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표현 매체임을 시사한다.

근대 미술 이후 이러한 색채의 자율성은 더욱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빈센트 반 고흐(Vincent van Gogh)는 실제 대상의 고유색보다는 자신의 감정과 내면 상태를 표현하기 위한 색채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였으며, 헨리 마티스(Henri Matisse)는 색을 형태와 분리하여 순수한 조형적·정서적 표현 수단으로 확장하였다.⁴⁾ 또한, 아수파(Fauvism)는 강렬하고 비사실적인 색채를 활용함으로써 색 자체의 표현 가능성과 독립성을 극대화하였다. 색채의 자율성은 미술 영역을 넘어 인간의 지각과 심리 반응 연구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색은 특정 대상이 제시되지 않더라도 독립적인 상징 체계로 작용하여 인간의 감정적 반응을 유발할 수 있으며, 동일한 형태라도 어떤 색이 사용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와 분위기로 인식될 수 있다. 이에 색채의 자율성은 개인의 감정과 사고를 보다 자유롭게 드러내게 하는 중요한 시각적 표현 특성이라 할 수 있다.

4) 홍영이, 2021, 앙리 마티스의 색채와 조형성 연구, 수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53-58.

2-3. 콥(Kolb)의 경험학습이론

경험학습(Experiential Learning)은 학습자가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지식을 형성하고, 그 경험에 대한 반성적 성찰과 해석을 거쳐 새로운 이해를 실제 상황에 적용해 가는 순환적 학습 과정을 의미한다.⁵⁾ 듀이(Dewey, 1938)는 [경험과 교육(Experience and Education)]에서 교육이 경험의 연속성과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설명하며 학습자가 실제 경험을 통해 의미를 형성하고, 경험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이해와 행동 방식을 만들어 갈 때 진정한 학습이 가능하다고 보았다.⁶⁾ 또한 ‘행동을 통한 학습(learning by doing)’을 강조하며, 경험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성찰 과정을 거쳐야 교육적 가치가 형성된다고 주장하였다.⁷⁾ 이를 바탕으로 콥(David A. Kolb, 1984)은 학습을 ‘경험의 변형을 통해 지식이 생성되는 과정(transformation of experience)’으로 정의하고, 경험 학습 순환 모델을 네 단계로 제시하였다.⁸⁾ 첫 번째 단계인 구체적 경험(Concrete Experience)에서는 학습자가 새로운 상황을 직접 경험하거나 기존 경험을 새롭게 인식한다. 이 과정에서 시각, 촉각, 청각 등 다양한 감각 활동이 학습의 출발점이 되어⁹⁾ 환경을 이해하고 정서적 불편함을 제공하는 경험 속에서 문제점을 인식하게 된다. 두 번째 반성적 관찰(Reflective Observation)에서는 자기 경험을 돌아보며 경험의 의미와 결과를 분석하고 성찰하게 된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개인의 학습을 촉발한 구체적 경험의 의미를 해석하는 인지적 성찰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¹⁰⁾ 세 번째 단계인 추상적 개념화(Abstract Conceptualization)는 성찰을 통해 얻은 이해를 일반화하여 개념이나 원리로 정리하는 과정이다. 반성적 관찰을 통한 경험 속 근본적·추상적 지식, 가정, 원리 등을 추출하여 이를 규정하는 논리적인 통합의 단계이다. 마지막으로 능동적 실험(Active Experimentation) 단계에서는 새롭게 형성된 개념을 실제 상황에 적용하거나 새로운 행동으로 실험

5) Kolb, 1984; Miettinen, 2000; Illeris, 2018

6) 강미영 외 1명, 2025, 대학생의 경험 중심 교육과정 참여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경험학습이론을 중심으로, 대학 교수-학습 연구 제 18권 4호, pp. 343-344.

7) Dewey, 1938; Glassman, 2001

8) Kolb, 1984

9) Mcleod, 2017; 권다남, 배예나, 2025

10) 채수진, 2020, 경험학습이론의 의학교육에의 적용, 의학교육논단 제22권 2호, p.94.

하는 단계이다. 콥은 이러한 네 단계는 단순히 일회성 과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순환하며 이루어지며 구체적 경험, 경험에 대한 반성 및 이를 다시 개념화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학습이 성사된다고 하였다. 또한 학습자는 어느 단계에서든 학습을 시작할 수 있지만, 모든 단계를 경험할 때 보다 깊이 있는 학습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콥의 경험학습이론은 경험이 학습으로 전환 되는 과정을 체계적인 순환구조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 프로그램 설계에 활용성이 높다. 특히 위의 네 단계는 색채를 직접 체험하고, 경험을 성찰하며, 개념화한 후 실제 표현 활동으로 확장하는 색채교육의 특성과 높은 연관성을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험중심 색채교육 프로그램의 설계 모형으로 콥의 경험학습이론을 적용하였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경험중심 색채교육 프로그램이 학습자의 표현성, 단순성, 자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단일집단 사전-사후 설계(one-group pretest-posttest design)를 적용한 연구이다. 본 연구는 콥의 경험학습 이론을 기반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프로그램 적용 전후의 변화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교육적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1) 이론적 준거도출을 위한 문헌 분석

색채의 표현성, 단순성, 자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경험중심 색채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색채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탐색하고 이를 근거로 색채교육의 방향과 성격을 설정하였다. 또한 경험학습을 기반으로 대학생에게 적합 가능한 교수-학습 과정 기본 모형을 구축하고 이론적 근거 확립과 체계를 형성하였다.

2) 실천적 준거도출을 위한 연구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경험학습이론, 색채교육 관련 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프로그램 개발의 핵심 준거를 도출하였다. 특히 경험중심 학습 구조와 색채의 표현성, 단순성, 자율성을 연결하여, 학습자의 감각적 경험과 자기주도적 의미 형성을 중심으로 한 교육 방향을 설정하였다.

2-1) 표현성 향상을 위한 실천적 준거

표현성 향상을 위한 실천적 준거는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다. 첫째, 감정 기반 경험 활동을 중심으로 구성해야 한다. 색채는 논리적 사고 이전의 직관적 감각 반응과 연결되므로, 학습자가 자기 경험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활동이 먼저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정답 중심의 표현을 지양하고 개인적 해석을 존중하는 환경이 필요하다. 표현성은 동일한 결과를 재현하는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색으로 의미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셋째, 경험 이후 성찰 과정을 포함해야 한다. 학습자가 자신의 색 선택 이유와 감정 반응을 언어화하는 과정은 경험을 학습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단계로 작용한다.

2-2) 단순성 향상을 위한 실천적 준거

단순성 향상을 위한 실천적 준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한 조건을 활용한 학습 구조가 필요하다. 색의 수를 제한하거나 핵심 요소 중심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활동은 학습자가 불필요한 시각 요소를 제거하고 본질에 집중하도록 유도한다. 둘째, 시각적 위계와 구조화를 강조해야 한다. 단순성은 단순히 색의 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정보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조직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셋째, 반복적인 비교와 수정 과정을 포함해야 한다. 학습자는 복잡한 구성과 단순한 구성의 차이를 경험적으로 비교하면서 시각적 명료성의 중요성을 체득하게 된다.

2-3) 자율성 향상을 위한 실천적 준거

자율성 향상을 위한 실천적 준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색 선택의 자유를 보장한다. 학습자가 특정 색채 규범이나 정답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색의 의미를 구성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둘째, 자기 해석 중심의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수는 결과를 평가하기보다 “왜 이러한 색을 선택했는가?”를 질문함으로써 학습자의 사고 과정을 확장시켜야 한다. 셋째, 비사실적 색 표현과 창의적 실험을 허용해야 한다. 이는 색채를 독립적인 의미 생성 도구로 인식하게 하며, 자기주도적 표현 능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위의 내용을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표현성, 단순성, 자율성의 세 요소를 통합하기 위하여 경험학습 순환 구조를 프로그램 전체에 적용하였다. 또한 색채의 조형적 특성을 동시에 학습하기 위한 색채교육 설계 방향으로 해석(Meaning - making)-표현성 강화, 제한(Constraint)-단순성 형성, 선택(Choice)-자율성 강화의 세 가지 공통 구조를 토대로 학습 효과를 높이고자 하

였다. 따라서 세 가지 특성의 향상을 위한 교육설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모든 학습 활동은 경험-성찰-개념화-적용의 단계가 반복되도록 구성한다. 이는 단순한 활동 경험을 넘어 학습자의 인지적-정서적 변화로 연결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둘째, 결과 중심보다 과정 중심의 학습 환경을 조성한다. 학습자의 참여, 성찰, 의미 구성 과정을 중요하게 다루며, 수행 과정 자체를 학습의 핵심 요소로 보았다. 셋째, 감정-인자-표현의 통합적 경험이 가능하도록 다 감각적 접근을 활용한다. 음악, 이미지, 공간 등의 감각 자극을 색채 활동과 연결함으로써 학습자의 경험 범위를 확장하였다. [표1]은 색채의 3가지 조형적 특성 향상을 위한 설계 방향과 이론적 근거를 정리한 내용이다.

[표1] 색채의 조형적 특성 향상을 위한 설계 방향 및 이론적 근거

특성	설계 방향	이론적 근거
표현성	-감정, 경험기반 주제제시 -정답 없는 결과 허용 -과정 설명 포함	-색은 독립적 정서 자극 -언어 이전 단계의 감정 표현 매체로 작용
단순성	-색 수 제한 -명도, 채도 대비 중심 활동 -핵심 요소만 남기는 과제	-게슈탈트 심리학 -인지부하 감소 (집중력 향상)
자율성	-질문 중심 수업 -동일 주제, 서로 다른 색 결과 허용 -교수의 색채 기준 최소화	-형태와 독립적으로 의미 생성 -색의 해방 개념

2-4) 측정도구의 개발

본 연구에서는 경험중심 색채교육 프로그램이 학습자의 색채 표현성, 단순성, 자율성에 미치는 효과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양적·질적 측정을 결합한 혼합형 측정 도구를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학습 결과뿐 아니라 경험 과정과 인식 변화를 통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함이며, 쿠프의 경험학습 이론에서 강조하는 경험과 성찰의 중요성을 반영한 것이다. 먼저, 양적 측정을 위해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설문 문항은 표현성, 단순성, 자율성의 세 영역으로 구분되며, 각 영역별로 8문항씩 총 24문항으로 이루어졌다. 표현성 문항은 색채를 활용한 감정 표현과 정서 전달 능력에 관해 학습자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색채를

통해 얼마나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도록 설계하였다. 단순성 문항은 게슈탈트 심리학의 단순화 원리와 시각적 정보 조직에 관한 이론을 바탕으로 색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효과적으로 구조화하는 능력을 평가하도록 구성하였다. 자율성 문항은 현대 미술 및 디자인 분야에서 강조되는 색채의 독립적 의미 형성과 학습자의 주제적 의사결정 능력에 관한 것으로 색채 선택의 독립성과 개인적 해석 능력을 측정하도록 구성하였다. 모든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학습자의 인식 수준을 측정하도록 하였다. 이를 정리한 내용은 [표2]와 같다.

[표2] Riso와 Hudson의 QUEST 문항별 특성

특성	설문 내용 (사전·사후 동일)
표현성	1. 나는 나의 감정을 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 2. 색을 통해 나의 상태를 전달할 수 있다 3. 색 선택이 감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4. 나는 색을 사용할 때 감정 표현을 고려한다 5. 색의 강도(명도, 채도)를 감정 표현에 활용한다 6. 나의 색 표현은 타인에게 의미 전달이 가능하다 7. 색을 통해 분위기를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8. 감정에 따라 색을 다르게 선택한다
단순성	1. 나는 색을 사용할 때 불필요한 요소를 줄인다 2. 적은 색으로도 표현이 가능하다 3. 색 구성을 단순하게 정리할 수 있다 4. 핵심 색을 중심으로 구성할 수 있다 5. 복잡한 색보다 간결한 구성을 선호한다 6. 색의 수를 의도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7. 색을 통해 시각적 위계를 만들 수 있다 8. 색을 정리하여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
자율성	1. 나는 색을 스스로 선택한다 2. 색 선택에 나만의 기준이 있다 3. 다른 사람의 기준보다 나의 판단을 따른다 4. 색에 대해 나만의 해석이 가능하다 5. 새로운 색 조합을 시도하는 것을 즐긴다 6. 색 선택에 확신을 가지고 있다 7. 정답이 없어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8. 색을 통해 나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

다음으로, 수행평가를 위한 루브릭 평가를 병행하였다. 이는 학습자가 제작한 색채 작품을 분석하여 실제 표현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루브릭은 표현성, 단순성, 자율성의 세 가지 기준에 따라 각각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평가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평가자가 독립적으로 채점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수행평가는 자기보고식 설문이 가지는 주관적 편향을 보완하고, 실제 행동과 결과물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종합하면, 본 연구의 측정 도구는 자기보고식 설문, 수행평가 루브릭, 성찰 기록을 결합

한 다층적 구조로 설계되었으며, 이를 통해 학습자의 인식 변화, 실제 수행 능력, 그리고 경험 과정 전반을 통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3-2. 연구 대상 및 수집 기간

본 연구는 수도권 소재 대학의 미술 및 디자인 관련 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은 색채 및 시각 표현과 관련된 기초 교과를 이수한 경험이 있으나, 경험학습 기반의 체계적인 색채교육 프로그램에는 참여한 경험이 없는 학생 총 32명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자료 수집은 2025년 9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약 15주 동안 진행되었다. 프로그램 운영 전 연구 대상자의 표현성, 단순성, 자율성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전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이후 경험중심 색채교육 프로그램을 주 1회씩 총 15주간 운영하였다.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동일한 측정 도구를 활용하여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3-3. 연구 결과

1) 경험중심 색채교육 프로그램의 설계

경험중심 색채교육 프로그램은 다음의 [표 3]과 같은 교과목 목표 및 기대 성과를 가지고 계획되었다. 과정 및 탐색 중심의 교육설계를 위해서는 제한, 선택, 해석의 3가지 원리를 토대로 세 요소를 동시에 키우는 구조를 형성하였다. 표현성은 “감정을 색으로 번역하는 능력”으로 감정 및 경험 기반의 주제를 제시하거나 과정을 반드시 포함하여 정답없는 결과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단순성은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는 선택 능력”으로 색 수에 제한을 두거나 명도/채도 대비 중심 활동 및 핵심 요소만 남기는 과제 등 제한된 상황 속에서 색채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율성은 “색을 스스로 결정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능력”으로 색 선택의 이유를 묻는 질문 중심의 수업, 동일 주제 속 서로 다른 결과물 허용 및 색채 기준의 최소화화를 통해 강화하도록 하였다.

[표3] 경험중심 색채교육 프로그램의

목표 및 기대성과

교과목 목표	
표현성	- 감정 및 경험을 색으로 전환하는 능력 - 비언어적 의미 전달 능력

	- 개인적 색채 언어 구축
단순성	- 핵심 요소를 선별하는 능력 - 색채 최소화 및 구조화 능력 - 시각적 명료성 확보
자율성	- 색 선택의 주체성 - 색 의미의 독립적 해석 능력 - 창의적 의사결정 능력
기대 성과	
1.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색채로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표현할 수 있다. 2. 제한된 색을 활용하여 효율적이고 명확한 시각 표현을 구성할 수 있다. 3. 색채 선택에 있어 외부 기준이 아닌 자기 해석 기반 판단을 내릴 수 있다. 4. 색채 이론을 실제 표현과 연결하여 적용 및 확장할 수 있다. 5. 경험-성찰-개념-적용의 학습 과정을 자기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세 가지가 함께 작용할 때 학습 효과가 가장 클 수 있도록 구체적 경험 - 성찰적 관찰 - 추상적 개념화 - 능동적 실험의 4단계의 순환과정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표4]는 프로그램 구성과 핵심 포인트를 정리하였다.

[표4] 활동 진행 단계 및 교수·학습 과정

단계	프로그램 구성	핵심 포인트
구체적 경험	- 색채 자극 제시 (이미지, 공간, 조명 등) - 감정 기반 색 선택 활동 - 제한된 색으로 표현하기 (단순성 유도)	- 색채 학습은 시각 경험 없이는 개념 형성이 어려움 - 초기 단계에서 이론 설명을 최소화해야 효과적
성찰적 관찰	- 색 선택 이유 설명 - 타인의 결과 비교 및 토의	- 성찰 과정 없이는 경험이 학습으로 전환되지 않음 - 언어화 과정이 인지 구조 형성에 핵심 역할
추상적 개념화	- 색채 이론 연결 - 색채심리학 개념 도입 - 개인 경험과 이론의 대응 관계 분석	- 개념은 경험 이후 제시될 때 이해도가 높음 - 이론은 설명이 아니라 경험의 구조화 도구
능동적 실험	- 프로젝트 기반 프로젝트 - 감정/주제기반 구성과제 - 색채 단순화 및 자율적 표현 실습	- 새로운 상황 적용이 이루어질 때 학습 완성 - 반복 경험을 통해 전이학습 발생

또한, 본 프로그램의 평가는 단순한 결과물의 완성도를 측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습자의 경험 과정과 의미 구성 능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경험학습

이론에서 강조하는 경험-성찰-개념화-적용의 순환과정이 실제 학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결과보다 과정에 대한 평가가 필수적이라는 점에 근거한다. 우선, 평가의 가장 큰 비중은 과정 중심 평가에 둔다. 수업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는 실험 활동, 색채 표현 과제, 토의 참여는 학습자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경험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 간주된다. 특히 매차시 이후 작성하는 성찰 기록은 단순한 활동 보고가 아니라, 자신의 색 선택 이유와 감정 반응, 그리고 타인과의 차이를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드러내는 핵심 자료로 활용된다. 이러한 과정은 색채 경험을 개인의 의미로 전환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평가에서도 중요한 단계이다. 다음으로 프로젝트 평가는 결과와 과정을 통합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중간 및 기말 프로젝트에서는 하나의 완성된 작품뿐 아니라, 그 작품이 형성되기까지의 사고 과정과 선택의 논리가 함께 평가된다. 이때 평가는 크게 세 가지 핵심 역량 표현성, 단순성, 자율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표현성은 색채가 감정이나 메시지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단순성은 제한된 색을 통해 시각적 명료성과 집중도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구현했는지를 본다. 자율성은 외부의 기준이나 모방에 의존하기보다, 학습자가 스스로 색의 의미를 해석하고 선택했는지를 중심으로 평가된다. 또한 평가 과정에서는 설명과 성찰의 논리성이 중요한 요소로 포함된다. 동일한 결과물이라도, 그 색을 선택한 이유를 얼마나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이는 색채교육이 단순한 미적 결과물이 아니라, 의미를 구성하는 인지적·정서적 활동이라는 점을 반영한다. 무엇보다 교수자의 역할 역시 평가자에 머무르지 않고, 학습자의 사고를 확장시키는 촉진자(facilitator)로 설정하여 피드백은 정답을 제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왜 이 색을 선택했는가”, “다른 선택은 가능했는가”와 같은 질문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러한 피드백 방식은 학습자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색채에 대한 자기만의 기준을 형성하도록 돕는다. 이를 종합하여 본 교과목의 평가는 참여와 경험, 성찰, 그리고 결과물의 통합적 의미 형성 과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학습자의 표현성·단순성·자율성을 균형 있게 평가하고자 한다.

2) 경험중심 색채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15주차 경험중심 색채교육 프로그램의 교수-학습 과정의 초기 단계에서는 학습자가 색을 감각적으로 경험하도록 하는 활동이 중심이 된다. 이 단계에서는 특정

한 정답이나 이론을 먼저 제시하기보다, 색을 보고 떠오르는 감정이나 기억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유도한다. 다음 단계에서는 학습자가 자신의 색 선택과 표현 과정을 되돌아보는 성찰 활동이 이루어진다. 학생들은 왜 특정 색을 선택했는지, 어떤 감정을 전달하고자 했는지를 언어화하게 되며, 이를 통해 자신의 감각적 경험을 인식할 수 있는 사고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중기 단계에서는 색채 이론과 시각 구조를 연결하는 활동이 이루어진다. 색채의 기본 개념을 경험과 연결하여 이해하도록 하며, 특히 제한된 색만을 사용하여 표현하는 과제를 통해 단순성을 훈련한다. 후기 단계에서는 학습자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프로젝트 중심 활동이 진행된다. 이 단계에서는 비사실적 색 표현이나 자기 해석 중심의 창작 활동을 통해 색을 독립적인 의미 생성 도구로 활용하도록 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학습 결과를 공유하고 성찰하는 활동이 이루어진다. 학생들은 자기 작품과 학습 과정을 발표하고, 프로그램 이전과 이후의 변화에 대해 스스로 분석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한 결과 정리가 아니라 학습자가 자신의 성장 과정을 인식하고 통합하도록 돕는 메타인지적 단계로 기능한다.

즉, 본 교수-학습 과정은 경험 → 성찰 → 구조화 → 자율적 적용의 흐름 속에서 표현성, 단순성, 자율성을 단계적으로 심화시키고, 최종적으로 통합적 색채 역량을 형성하도록 설계된 경험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개발된 경험중심 색채교육 프로그램은 [표5]와 같다.

[표5] 활동 진행 단계 및 교수-학습 과정

주차	주제	핵심 활동	Kolb 단계	역량 요소
1	오리엔테이션	나의 색 경험 표현	경험	표현성
2	색채 지각	색 반응 실험	경험	표현성
3	감정과 색	감정 색 mapping	경험	표현성
4	성찰	이유 토의	성찰	자율성
5	색채 이론	색 개념 연결	개념화	단순성
6	색 대비	시각 효과 실험	개념화	단순성
7	단순성 훈련	3색 제한 표현	적용	단순성
8	중간 프로젝트	감정 표현 작품	적용	표현성

9	자율성	비사실 색 표현	경험	자율성
10	색 상징	개인/문화 의미	성찰	자율성
11	다감각	공감각·색 연결	경험	표현성
12	디자인 적용	색채 커뮤니케이션	개념화	단순성
13	프로젝트 기획	개인 주제 설정	성찰	자율성
14	제작	작품 완성	적용	통합
15	발표	성찰 및 피드백	성찰	통합

3) 측정도구 결과

측정 도구의 타당도 확보를 위해 색채교육 및 교육 학 분야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문항의 적절성을 확인 하였으며,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모든 하위 영역에서 .70 이상의 신뢰도를 확보하여 측정 도구의 내적 일관성이 검증되었다. [표6]은 경험중심 색채교육 프로그램 적용 전후의 표현성, 단순성, 자율성 변화를 분석한 대응표본 t-test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분석 결과, 표현성은 사전 3.12에서 사후 평균 4.21으로, 단순성은 사전 평균 3.05에서 사후 평균 4.10으로 자율성은 사전 평균 3.20에서 사후 평균 4.35로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이는 경험 기반 색채 활동과 성찰 과정이 학습자의 감정 표현 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켰고, 제한된 색을 활용한 활동이 학습자의 시각적 구조화 능력과 핵심 요소 중심의 표현 능력을 강화한 결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학습자가 정답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스스로 색의 의미를 구성하고 선택하는 경험을 반복함으로써 자기주도적 표현 능력이 향상되었음을 보여준다. 종합하면, 경험중심 색채교육 프로그램은 표현성, 단순성, 자율성의 세 영역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표6] 경험중심 색채교육 프로그램 효과 검증

(대응표본 t-test)

변인	사전 평균	사후평균	t	P
표현성	3.12	4.21	-5.32	.000***
단순성	3.05	4.10	-4.87	.000***
자율성	3.20	4.35	-5.91	.000***

[표7]은 표현성, 단순성, 자율성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실시한 Pearson 상관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분석 결과, 표현성과 단순성 간에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r=.62, p<.01$)가 나타났으며, 이는 감정 표현 능력이 높을수록 시각적 구조화 능력 또한 함께 향상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표현성과 자율성 간의 상관관계는 가장 높은 수준($r=.71, p<.01$)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신의 감정을 색으로 표현하는 능력이 높을수록 색 선택 과정에서 자기주도성과 독립적 해석 능력 또한 강화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단순성과 자율성 간에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r=.65, p<.01$)가 나타났다. 이는 색채를 단순화하는 과정이 단순한 기술적 조절이 아니라 선택과 판단을 포함하는 인지적 과정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세 변인은 서로 독립된 요소라기보다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된 통합적 색채 역량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7] 변인 간 상관관계 분석

변인	표현성	단순성	자율성
표현성	1	.62**	.71**
단순성	.62**	1	.65**
자율성	.71**	.65**	1

수행평가 루브릭 결과에서도 표현성은 사전 평균 2.8에서 사후 평균 4.3으로, 단순성 역시 사전 평균 2.9에서 사후 평균 4.1로, 자율성은 사전 평균 2.7에서 사후 평균 4.4로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보고식 설문 결과와 유사한 방향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고, 학습자의 인식 변화뿐 아니라 실제 수행 능력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확인되었음을 보여준다.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콕의 경험학습 이론을 기반으로 한 경험중심 색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해당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색채 표현성, 단순성, 자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수도권 소재 대학의 미술 및 디자인 관련 전공 학생 32명을 대상으

로 15주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사전·사후 설문조사, 수행평가 루브릭, 성찰 보고서 분석을 통해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경험중심 색채교육 프로그램은 표현성, 단순성, 자율성의 모든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향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표현성은 감정 기반 색채 활동과 성찰 과정의 반복을 통해 향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습자들은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색으로 표현하고 이를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색채를 단순한 시각 요소가 아니라 정서적 표현 매체로 인식하게 되었으며, 이는 감정 인식과 자기표현 능력의 향상으로 이어졌다. 단순성 또한 유의미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한된 색채를 활용하는 활동은 학습자가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고 핵심적인 시각 구조를 형성하도록 유도하였으며, 이는 시각적 명료성과 전달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히 색채를 단순화하는 과정이 기술적 제한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포함하는 인지적 구조화 과정이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자율성은 세 변인 중 가장 큰 향상 폭을 보였다. 이는 프로그램이 정답 중심의 표현 방식을 지양하고 학습자의 주관적 경험과 해석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학습자들은 비 사실적 색 표현과 자기 해석 중심 활동을 통해 색채를 독립적으로 선택하고 의미화하는 경험을 하였으며, 이를 통해 자기주도적 표현 능력을 강화하게 되었다. 또한 상관분석 결과 표현성, 단순성, 자율성은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 요소가 서로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통합적 색채 역량을 형성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질적 분석 결과 역시 양적 분석 결과와 동일한 방향으로 나타났다. 성찰 보고서에서는 감정 인식 증가, 자기 기준 형성, 단순화 전략 사용과 관련된 진술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으며, 수행평가 결과에서도 실제 색채 표현 능력의 향상이 확인되었다. 이는 경험중심 색채교육이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학습자의 사고 과정과 표현 방식, 자기 인식에까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음을 의미한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경험중심 색채교육이 학습자의 감정 표현 능력, 시각적 구조화 능력, 자기주도적 표현 능력을 통합적으로 향상시키는 효과적인 교육 방법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색채교육이 이론 중심의 기능 교육을 넘어 경험과 성찰, 자기 해석을 중심으로 한 창의적 교육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에 연구자는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색채교육은 기존의 이론 및 기능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학습자의 경험과 감정, 자기 해석을 중심으로 한 경험중심 교육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특히 색채를 단순한 지식 전달의 대상이 아니라 감정과 의미를 생성하는 표현 매체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학 색채교육에서는 표현성, 단순성, 자율성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기존의 색채교육은 조화 이론이나 배색 기술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감정 표현, 시각적 구조화, 자기주도적 의미 형성을 포함하는 통합적 색채 역량 중심 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색채교육의 효과를 보다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뿐 아니라 수행평가, 포트폴리오 분석, 성찰 저널 등 다양한 평가 방법을 함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학습자의 인식 변화뿐 아니라 실제 표현 과정과 경험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을 다양한 연령과 전공 분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미술 및 디자인 관련 전공 대학생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비전공자, 청소년, 성인 학습자 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다섯째, 디지털 미디어 환경과 연계한 경험중심 색채교육 연구가 필요하다. 최근 생성형 AI, 디지털 아트, 인터랙티브 미디어 등 다양한 시각 환경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색채 경험과 자기 표현이 디지털 환경 속에서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연구 또한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색채교육은 단순한 시각 기술 교육을 넘어 인간의 감정과 경험, 자기 이해를 확장하는 교육적 과정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색채교육 연구는 창의성, 감성, 심리, 사용자 경험 등 다양한 학문 분야와 융합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루돌프 아론하임, 김재은 역, 『예술 심리학』,

- 이화문고, 1984
2. 박은주, 『형과 색의 기초』, 미진사, 1996
 3. 파버비렌, 『파버비렌의 색채 심리』, 동국출판사, 1985
 4. 강미영, 배예나, ‘대학생의 경험 중심 교육과정 참여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경험학습이론을 중심으로, 대학 교수-학습 연구 제18권 4호, 2025
 5. 채수진, ‘경험학습이론의 의학교육에의 적용’ 의학교육논단 제22권 2호, 2020
 6. 권다남, 배예나, 대학생의 경험학습, 협력학습, 탐구학습 척도 개발연구, 교육혁신연구, 34(3)
 7. 김아영, ‘한국인의 빨강에 대한 감성연구’, 홍익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8. 김예원, ‘교육목표분류와 체제적 기반의 모듈식 색채교육과정 개발 연구 : 4년제 대학교 교수설계의 활용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디자인공예학과 색채전공 박사학위논문, 2023
 9. 김창희, ‘무의식적 반복에 드러나는 색채의 조형성 연구: 연구자의 작품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1
 10. 최경숙, ‘Henry Matise의 조형적 특성에 관한 연구: 색종이 작업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11. 홍영이, ‘앙리 마티스의 색채와 조형성 연구’, 수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1
 12. Dewey. J, 『Experience and education』, New York: Macmillan, 1938
 13. Illeris. K, 『Contemporary theories of learning: Learning theorists... in their own words (2nd ed.)』, Routledge, 2018
 14. Kolb, D. A. 『Experiential Learning』,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 1984
 15. Ocvirk, O.G and R.E. Stinson and P.R. Wigg and R.O. Bone and D.L. Cayton, 객재은, 황진영 옮김, 『미술의 언어』, 아트나우, 2004
 16. Glassman. M, ‘Dewey and Vygotsky: Society, experience, and inquiry in educational practice, Educational Resercher, 30(4)
 17. McLeod. S, ‘Kolb’s learning styles and experiential learning cycle, Simply Psychology
 18. Miettinen. R, ‘The concept of experiential learning and John Dewey’s theory of reflective thought and ac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2000